

“「올림픽」바람이 분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건설붐

디즈니랜드 건설붐이 불고있다. 최근 일기시작한 레저산업붐을 타고 고개를 들기시작한 디즈니랜드 구상은 88올림픽 서울개최결정을 전후해 표면화되기 시작, 4~5개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임을 강조하는 이 디즈니랜드붐에 대해 관광업계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이나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세워졌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은 『기존 관광자원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디즈니랜드가 한꺼번에 여러개 생기는 일은 선후가 뒤바뀐 느낌이다』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현재까지 표면화된 것은 극동건설이 경기도 城南市에 서울패밀리랜드를 명성그룹이 경기도 楊平에 올림픽레저타운을, 慶州관광개발 공사와 三洲개발이 합작으로 普門단지 부근에 普門대공원, 미룡건설이 강원도 襄陽에 南涯랜드를 각각 건설한다는 것 이들 기업들은 모두 부지를 확보,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당국의 사업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인가가 나면 내년부터 일제히 착공할태세다.

이같은 기업들의 대단위 레저타운 건설붐은 80년대 관광산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정부의 방침과 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패밀리랜드 극동건설이 경기도 城南市 石雲洞일대(果川 부근) 부지 43만평을 확보, 2백50억~3백억원을 들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을 꾸민다. 사업승인이면 82년 6월께 착공, 87년까지 3차사업으로 나누어 완공할 계획.

시설내용은 민속촌, 동·식물원, 청소년회관, 3천명 수용능력의 수

영장, 수중발레관, 파도풀, 회전극장, 루프코스터(원심회전케도열차), 제트코스터(공중회전열차), 패러슈트타워(낙하산타기) 등 30여가지의 유기사설을 갖춘다. 수용인원은 10만여명.

□ 普門대공원 慶州 普門 호수부근의 三洲도투락목장 일대 60만평에 三洲개발과 慶州관광개발공사 합작으로 3백50억원을 투자, 건설한다. 82년에 착공, 8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예산도 자기자본 60%, 용자 및 외자도입 40%로 충당된다.

가족단위 공원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얼과 선조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한편 꿈과 낭만을 심어주는 유기사설을 갖추는데에 역점을 둔다는 것.

□ 올림픽레저타운 明星그룹이 경기도 楊平일대(용문산과 北漢江邊) 4백만평의 부지를 매입, 대단위 레저타운을 건설할 계획.

시설규모는 대규모민속촌(60만평), 민속도예촌, 민속관등을 건립,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태풍열차, 폭풍열차, 회전목마등 타는시설 14종 요술의집, 명작속의 집, 万国村(세계각국의 풍물소개)등 보는 시설도 15종을 갖춘다.

□ 雪嶽레저타운 明星그룹이 東草市 長砂洞일대 52만평에 종합관광지를 꾸미기 위해 지난 5월23일 착공, 오는 12월 1차사업을 완공한다. 투자액은 콘더미니엄 2백10억, 호텔98억, 휴양지시설 78억, 골프장 32억원등 4백여억원. 휴양지에는 스키장, 민속도예촌(10만평), 각종 모노레일열차 청소년대광장, 행글라이더 활강장, 요트장등이 들어선다.

□ 南涯랜드 미룡건설이 강원도 襄陽郡 현남면 南涯里에 있는 현재南涯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백 50만평에 바다를 낀 국제적인 레저타운을 세운다. <＊>

